

# CEO Information

2004.3.31 (제444호)

##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 목차

I. 세계 FTA 경쟁 중

II. 국별 FTA 추진 배경과 성과

III. 한국의 선택

내용문의: 박변순 수석연구원  
(pbs21@seri.org)  
02-3780-8243

## I. 세계는 FTA 경쟁 중

### 한국도 FTA 경쟁에 본격 참여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합류
  - 품목 수 기준으로 96% 이상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10년 내 철폐되고, 칠레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해짐
    - 한국은 쌀, 사과, 배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
  - 칠레와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관세율 등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중남미 수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
    -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차별 해소
-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아세안 등과는 공동연구에 착수
  -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2004년, 일본과의 협상은 2005년에 완료 예정
  - 아세안과 중국이 우리 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이며, 특히 중국은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북아 FTA를 제안

#### 우리 나라의 FTA 협상 현황

대상국가		현 상황	협상타결 예상	대상국의 FTA 체결
완료	칠레	- '04.4 발효	- 기 타결	30개국 이상
협상중	싱가포르	- '04.3 2차 협상	- 2004년 이내	30개국 이상
	일본	- '04.4 3차 협상	- 2005년 이내	싱가포르, 멕시코
논의	멕시코	- 일시 중단		30개국 이상
	동북아	- 공동연구 중		중국-아세안 체결
	아세안	- 공동연구 중		AFTA(아세안 역내) 중국,일본,인도 등과 협상

## FTA는 세계적인 추세

□ 2차 대전 이후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세계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일부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경제통합 사례도 증가<sup>1)</sup>

- 50~60년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FTA가 급증
  - 1958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FTA의 효시
- 90년대 들어 EU와 NAFTA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들도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에 가세

□ 1995년 WTO 발족 이후의 경제통합은 FTA가 중심

- 2003년 10월 말 현재 발효 중인 215개 지역무역협정 중 FTA가 70%를 차지
- WTO는 세계 전체 수입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2000년 43.2%에서 2005년 5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2)</sup>
  - NAFTA의 역내 수출비중은 47.9%(1994)→ 56.6%(2002)로 증가

□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FT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미주 34개국은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협상을 2005년 1월 완료할 예정

<sup>1)</sup>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불림.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공동대외관세)→ 공동시장(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동맹(거시경제정책 조화)→ 완전경제통합(통화, 재정정책 완전통합)」으로 구분함.

<sup>2)</sup> WTO, *World Trade Report 2003*, p.48.

- 미국은 정치적·경제적 목적에서 중남미 및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추진
- 아시아 중심국인 일본, 중국, 인도는 모두 FTA에 적극적이며 아세안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 중
- 일본-멕시코 FTA협상이 2004년 3월 12일 타결되었으며 중국-아세안 FTA는 6월에 협상을 완료할 예정

#### 2004년의 주요 FTA 협상들

	협상 완료(예정)	협상개시 및 제안
동일 대륙	Mercosur(남미공동시장)-Ancom (안데스공동체), 중국-아세안, 한국-싱가포르,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미국-페루, 미국-코스타리카,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태국, 한국-일본, 일본-필리핀, 중국-싱가포르, 러시아-EU(제안 단계)
대륙간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EU-Mercosur, 인도-Mercosur, 일본-멕시코, 싱가포르-캐나다	미국-아세안, 중국-호주, 인도-SADC(남아개발공동체), 인도-칠레

#### FTA 목적이 시장접근에서 경제개혁으로 전환

□ 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목적

-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고 판단<sup>3)</sup>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한 FTA가 여기에 해당
- FTA의 중심 내용은 교역품의 관세인하와 이와 관련된 내용(원산지, 반덤핑 등)에 국한

<sup>3)</sup> 경제통합(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대)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창출하여 역내 교역을 확대시킴. 무역창출효과는 역내회원국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과거 국내생산 및 소비에 의존하던 상품이 새로 교역재가 되는 현상으로 새로 무역이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후생의 증가를 가져옴.

- 90년대 후반 이후 FTA는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추진되기 시작
- 개도국들이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
    - NAFTA는 선진국(미국)과 개도국(멕시코)간 결합이며 투자가 중심
  - 최근 FTA는 경제협력, 투자보장, 인력이동, 경쟁법 조화 등과 같이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 지리적으로 떨어진 FTA가 급증하여 협상 중인 것의 3분의 1 정도가 대륙간 FTA<sup>4)</sup>
  -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주요 통상국가들은 FTA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
-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나라도 FTA 대열에 동참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
- 한-칠레에 이어 일본, 중국, 아세안 등 보다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과의 FTA를 남겨 놓고 있음
    - 일본 및 중국과의 FTA는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 국내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한-일 FTA는 자동차, 기계, 전자 부문에 피해를 주어 무역적자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고, 중국과의 FTA는 농업개방이라는 난관이 존재

<sup>4)</sup> WTO, *World Trade Report 2003*, p.51

## II. 국별 FTA 추진 배경과 성과

### 1. 멕시코 : NAFTA 참여 이후 외국인투자 급증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첫 사례

- 1993년 멕시코가 기존의 미국-캐나다 FTA(1989년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가 형성
  - EU가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들간에 이루어진데 비해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 미국의 경제규모는 멕시코의 23배, 인당 소득은 8배(1993년 기준)
  -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모두 국내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이를 무사히 극복

#### NAFTA 체결 당시의 정치적 논쟁

- ◇ 미국
  - 노조 등이 멕시코 저임 노동력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
  - 1992년 대선 당시 페로 후보는 NAFTA가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굉음 (giant sucking sound)이라고 하면서 정치 이슈화
- ◇ 멕시코
  - 미국의 저부가 하청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이 대두

-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접근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멕시코가 NAFTA에 참여한 주된 동기

-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해 무관세 접근이 가능
-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멕시코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외환 확보가 필요
  - NAFTA에 참여할 경우 역내 국가의 직접투자와 함께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역외 국가들의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 NAFTA 이후 대미수출과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

### □ NAFTA 참여 이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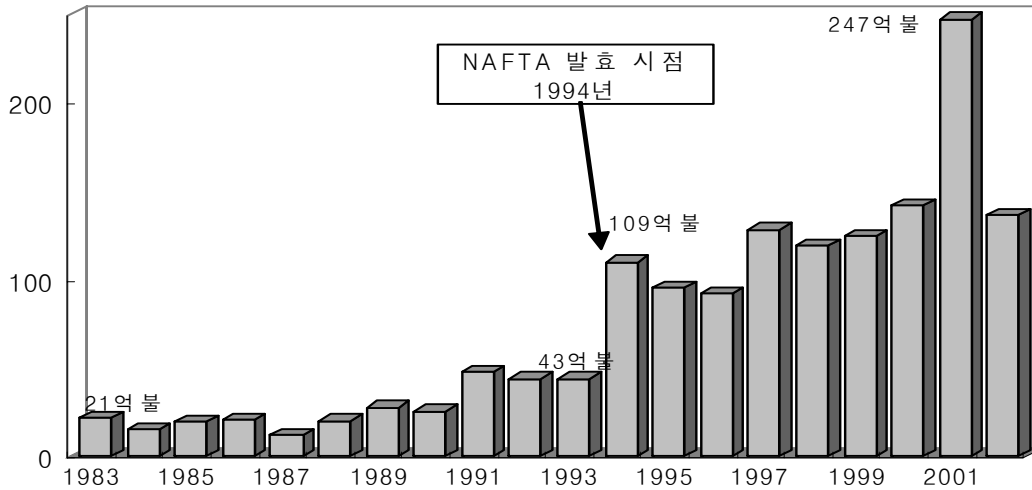
- 1993년 4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2003년 1,39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 멕시코는 현재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2대 교역 대상국
  - 미국 총 교역 중 국별 비중(2003년 기준)
    - 캐나다 19.9%, 멕시코 11.9%, 일본 8.6%

### □ 다국적 기업들의 對멕시코 진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

- NAFTA 체결 직후인 1994년의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
  - NAFTA 이전(1984~93년) 연평균 직접투자 유입액은 27억 달러였으나 NAFTA 이후(1994~2002년) 연평균 유입액은 132억 달러
- 멕시코를 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진출이 급증
  - 미국 국경과 인접한 마킬라도라(Maquiladora) 지역이 각광
- 對멕시코 FDI 유입액의 국별 구성은 NAFTA 체결 이전 및 이후에 큰 변동이 없음
  - FDI 유입액 중 미국의 비중 : 1993년 62% → 2002년 65%

- EU, 일본 등 역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직접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멕시코의 FDI 유입액 추이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www.publications.worldbank.org /WDI)

### NAFTA가 멕시코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는 보통 수준

- NAFTA 이후 교역 및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멕시코 경제 안정에 기여
  - NAFTA는 멕시코의 수출을 25%, 직접투자를 40%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세계은행, *Lessons from NAFTA*, 2003)
  - 수출 확대와 함께 실질 임금이 상승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창출된 신규 고용 중 50% 이상이 NAFTA 효과로 추정(2003년 미국 USTR 평가보고서)
  - NAFTA 결성 직후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
    - 1982년 위기 당시 회복에 7년이 걸렸지만, 1994년에는 7개월이 소요 (1997년 미국 USTR 평가 보고서)



- 하지만 NAFTA의 효과가 전체 산업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출 부문에 집중
  - NAFTA 체결 이후 최근까지(1994~2002년) 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
  - 직접투자가 몇몇 수출 분야에 집중되어 수출 부문과 非수출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 불균형도 심화
    - 멕시코 수출부문의 평균 임금은 비수출부문의 평균 임금을 37% 상회 (2002년 기준)
    - 非수출 부문의 침체로 NAFTA 이후 전 산업 실질 임금(자국 통화기준)은 1994~2001년간 연평균 1% 하락
  -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연관 효과가 크지 않으며 지식 기반 미정비로 인해 기술 습득도 미흡
    -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멕시코 국내 기업의 공급 비중이 5%에 불과

## 2. 칠레 : 개방화 수단으로서 FTA를 추진

### FTA 선진국 칠레

- 칠레는 협소한 시장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화를 적극 추진
  - 70년대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내적으로는 안정화와 민영화,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등 개방화를 추진
    - 미국 명문대 출신 경제관료(Chicago Boy)들이 경제정책을 주도
  - 개방화 정책 기조는 1990년 군사정권 붕괴 이후에도 지속

□ 90년대 이후 쌍무무역협상(FTA)을 대외 개방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

- 1990년 민주화 이후 대외 관계가 개선되면서 타국과의 FTA 협상이 용이해졌음
- FTA 체결을 통해 시장개방과 안정적 정책 운용에 대한 의지를 발신
- 멕시코(1991년)를 시작으로 남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

#### 칠레의 지역별 주요 FTA 체결 현황

	기체결 국가	향후 추진 계획
중남미	멕시코(1991) 콜롬비아(1993) 코스타리카(2002) 등	FTAA(범미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 참여
북미	캐나다(1997) 미국(2004)	
유럽	EU(2002)	
아시아	한국(2004)	중국에 FTA 제의(2003) 2004년 APEC정상회담에서 일본, 인도에 FTA를 제의할 계획

#### 전략적 FTA를 통해 개방화를 가속

□ 연쇄적인 FTA(additive regionalism) 추진으로 개방 효과를 극대화

-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무역자유화의 범위를 확대
- FTA 대상 국가를 늘려 나감으로써 교역 확대 및 시장 접근 확보 효과를 극대화
- 단계적인 FTA 추진으로 협상력을 집중
- 국가간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
- 많은 나라가 칠레가 형성한 FTA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칠레와의 FTA를 추진

□ 개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다양한 협상 노하우를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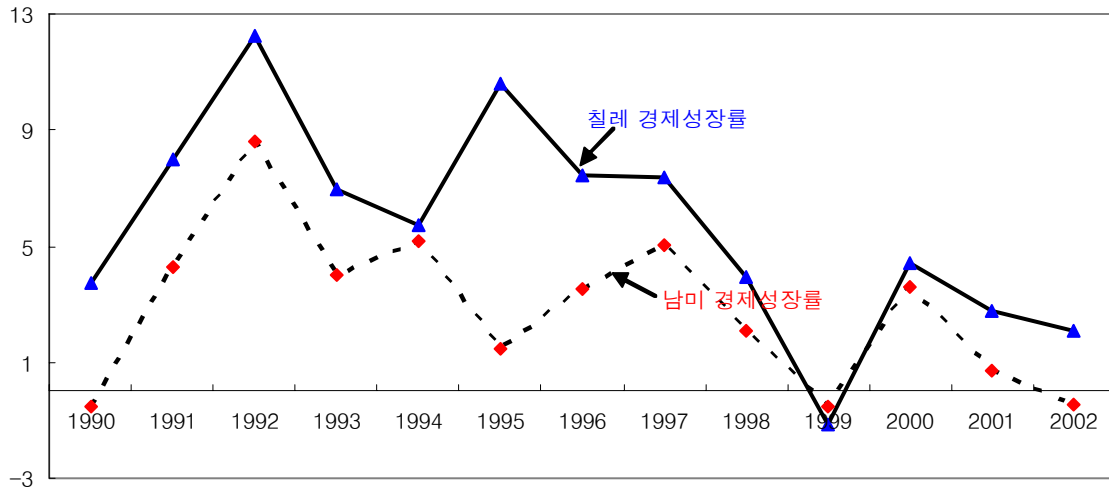
- 전 계층이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공유
  - FTA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80% 이상(2002년 칠레 외무부)
  -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 정부가 보조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FTA 추진에 따른 이해 갈등이 없음
- 협상팀의 전문성이 높고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
  - 협상 기간 내내 실무 협상팀을 그대로 유지
- 경쟁국보다 앞서 FTA를 추진하여 선점의 이익을 향유
  -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미국 및 한국(아시아권)과 FTA를 체결

개방에 힘입어 경제 활력이 제고

□ 개방화된 칠레가 여타 남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성과가 우월

- 90년대 이후 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외환위기를 모면
  - 1994년 말 멕시코 폐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남미 전체가 위기에 전염
  - 칠레는 개방에 따른 耐性 강화로 위기를 회피
- 연평균 경제성장률(1991~99년)이 6.4%로 고속 성장을 구가
- 1999년 마이너스 성장(-1.1%)을 경험한 후 성장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최근 경제가 회복세
  - 칠레 경제성장률 : 5.4%(2000)→ 2.9('01)→ 1.7('02)→ 3.4('03)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과 비교



주 : 남미 경제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국가의 성장률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www.publications.worldbank.org /WDI)

#### □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서 외자를 많이 유치

- 개방에 따른 경제체질의 개선으로 투자 위험이 낮고 경제적 자유도가 양호
- 헤리티지 연구소의 2003년 경제자유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53개국 중 13위로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함(한국 47위)
- 중남미 교두보로서의 입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

### 3. EU : 농업문제 합의로 관세동맹(역내 무관세)이 성립

EU는 FTA를 뛰어넘어 관세동맹을 출범시켰음

#### □ 1958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서 1970년까지 관세동맹을 완성할 것을 명시

- 관세동맹은 4년씩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

- 공산품 역내 관세 : 1단계(1961년) 40% 인하 → 2단계(1965년) 40% 추가 인하 → 3단계(1970년) 나머지 20% 인하
- 대외 관세 : 3단계 조정을 거쳐 1968년 7월 공동 관세율을 적용

□ 당초 계획보다 1년 반을 앞당겨서 1968년 7월 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출범했음

- 관세동맹은 역외 수입품에 대해 공동관세를 적용하므로, 독자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FTA보다 더 진전된 형태임
- 관세동맹과 FTA 모두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무관세

#### FTA와 관세동맹의 비교

	FTA	관세동맹	비교
역내 교역	무관세	무관세	
역외 교역	회원국 獨自 관세	共同 관세	관세동맹 > FTA

□ 유럽연합(EU)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경제통합체를 형성

- 관세동맹은 1993년 출범한 단일공동시장(Single European Market)과 1999년의 경제통화동맹(EMU)의 토대가 되었음

#### 관세동맹의 걸림돌이었던 농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 관세동맹 추진 과정에서 농업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

- 프랑스 등은 전통적으로 자국 농업을 보호
- 60년대 초 6개 회원국의 농업부문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와 20~25%

□ 로마조약에서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

-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국별 보호정책을 조정하고 통일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인식
- 1962년 7월부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시
- 공동농업정책의 골자는 역내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공동시장 형성, 역외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실시 등
  - 초기에는 공업국인 독일과 농업국인 프랑스간의 이해가 상치되어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했음
    - CAP 운영자금은 초기 3년간 국가별 할당을 통해 조달
- 1965년 7월 CAP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다른 5개국이 충돌
- 프랑스는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통해 CAP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5개 회원국들은 EC기구가 CAP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
  - 프랑스가 협상에 불참하여 7개월간 공동체 기능이 마비되는 등 EC는 존립 위기에 직면

#### 빈 의자 위기(Empty Chair Crisis)

- ▶ 1965년 7월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던 자국 대표단의 철수를 지시
- ▶ 1966년 1월말 '룩셈부르크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7개월간 EC 기능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빈 의자 위기')

- 1966년 1월 '룩셈부르크 타협(Luxembourg Compromise)'을 통해 CAP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

- 서독은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EU 예산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와 역내시장 보호를 수용
- 그 동안 유명무실했었던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이 1970년부터 본격 시행
  - EAGGF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EU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

□ 공동농업정책의 타결이 1968년 관세동맹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음

- 농업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프랑스와 제조업 강국인 서독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과 관세동맹이 성립

#### 유럽 경제통합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타협

	독일	프랑스
기본 입장 및 목표	- 제조업 강국 - 공산품 관세동맹 실현	- 전통 농업국 - 농산물 공동시장 형성
양보 내용	공동농업정책(CAP)	관세동맹
성과	獨·佛 주도로 경제통합 추진	

이후 유럽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

□ 관세동맹 출범 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경제통합의 견인차 역할 수행

- 관세동맹 체결로 역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
  - 역내교역 비중은 1960~1968년간 37.6%에서 50.6%로 크게 증가
- 프랑스에 의해 거부되었던 영국의 EC 가입이 1973년에 허용

□ 하지만 공동농업정책의 예산 확대가 유럽에 부담으로 작용

- 프랑스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데 성공
- 현재 EU는 CAP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의 농업수출국들의 반발 등에 직면

#### 4. 아세안(AFTA) :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로 성과가 미흡

##### 남남 협력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FTA는 아세안 국가들간의 남-남 협력에 의한 수평적통합(horizontal Integration) 성격의 자유무역지대<sup>5)</sup>
  - 1992년 아세안 6개국이 UR협상의 타결, 중국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개방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FTA를 결성
    - 2008년까지 공산품의 역내 관세율을 0~5%로 인하
    - 1992년 말 당시 평균관세율(가중평균) : 태국 27.6%, 필리핀 19.6%,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각 10%, 싱가포르 0.8%
  - AFTA의 주요 목적은 시장통합을 통해 역내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아세안을 생산기지로 전환시키는 것임
-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AFTA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
  - 당초 2008년으로 설정했던 관세인하 목표시기를 2002년으로 변경

<sup>5)</sup> AFTA의 근거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결성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AFTA))"이며 아세안자유무역지대로도 불림.



- 초기에는 관세인하만을 목적으로 했으나 『AFTA-Plus』라는 슬로건 하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우대, 관세구조의 조화, 지적재산권 협력, 표준 및 상호인증제도 조화 등도 추진

### 취약한 AFTA의 구조 때문에 성과가 미흡

□ 아세안이 AFTA를 통해 역내무역 확대와 직접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AFTA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었음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지향하고 산업보호 정책을 고수
- 농산물을 원천적으로 제외했으며, 공산품 중에서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적 제외(Temporary Exclusion)' 조치를 취했음
  - 각국이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 적용
  - 1995년 HS 9단위로 2,496개 품목이 잠정 제외품목에 해당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부품 사용비율이 40%를 넘도록 했으나 회원국들이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음
  - 다국적기업들이 부품을 수입·조립하여 역내부품 사용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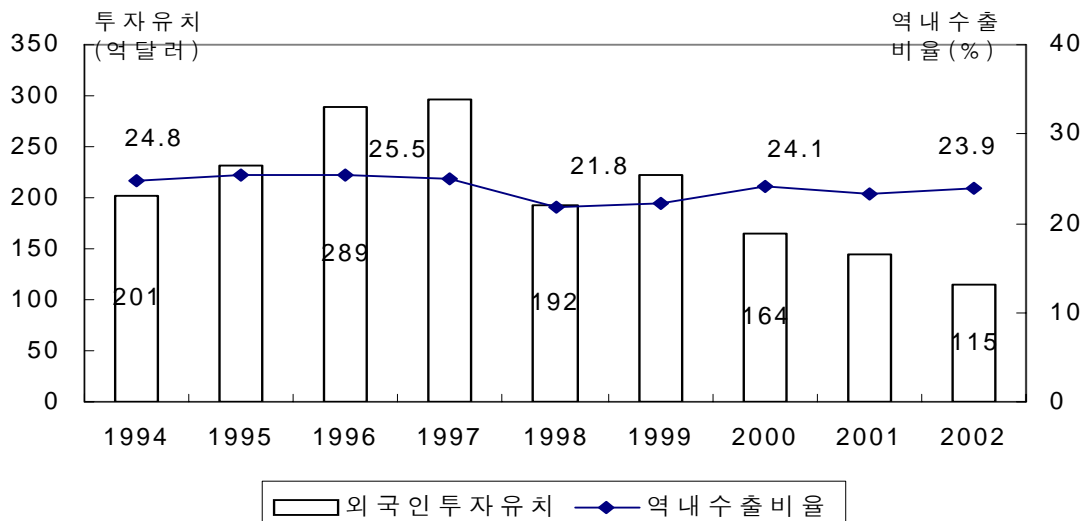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AFTA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회복을 우선하여 개방에 소극적

-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감소했고,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역내무역이 부진
- 당초 AFTA는 2000년부터 잠정제외 품목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는 AFTA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렸음

□ A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역내교역 창출 등에서 당초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

- 회원국들의 역내수출 비율은 1994년 24.8%에서 2002년 23.9%로 오히려 하락<sup>6)</sup>
  - 같은 기간 NAFTA의 역내수출 비율은 45.9%에서 56.5%로 상승
- 외국인직접투자도 1994년 201억 달러에서 2002년 115억 달러로 대폭 감소
  - 2002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27억 달러

AFTA의 투자유치와 역내수출비율 추이



### 사례 :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의 비효율

□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AFTA에 비협조적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민차 업체인 프로톤(Proton, 1985년)과 페로두아(Perodua, 1992년)를 설립하고 보호를 해 주었음

<sup>6)</sup>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3*, p.170 에서 계산

- 2003년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해야 했지만 자동차 분야의 218개를 잠정제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인하를 거부
- 태국 등 회원국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2005년에 20% 이하로 인하한다는 말레이시아의 계획을 결국 수용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 ◇ 태국 : 외국인직접투자(개방)로 업체 난립
  - 60년대부터 일본, 미국, 유럽자동차 업체들이 진출(2002년 14개 진출)
  - 부품 수입관세 20% 등 저율의 관세 유지
  - 1991~2001년 기간에 다국적 기업들의 자동차 분야 투자는 13억 달러
- ◇ 말레이시아 : 자국기업 보호로 비효율적
  - 국민차(2개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 정책을 유지
  - 완성차 수입관세 140~300%, 판매세 25~65%, 부품 42~80%
  - 국민차용 부품수입에는 13%의 저율 관세 부과
  - 국민차 육성으로 경쟁력이 없고 정부 부담이 증가

□ 말레이시아의 국민차 업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으로 명맥을 유지

-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때문에 국민차가 2003년 승용차 내수 32만 대 중 84.9%인 27만 대를 차지
- 정부의 과보호로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품질이 낮아 외국 자동차의 판매가 최근 급증
  - 현대자동차는 2003년 약 1만 6천 대를 판매하여 승용차부문 최대의 외국업체로 부상(외국차 전체 4만 8천 대)

- 말레이시아는 국민차를 英聯邦國家들에 수출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량이 감소 추세
- 말레이시아의 완성차 수출은 2003년 상반기 4,390대에 불과

#### 말레이시아 승용차 시장 추이

		1997	2000	2002	2003
판매(천대)	국민차	255	261	329	272
	비국민차	53	21	31	48
	계	308	282	360	320
시장점유 (%)	국민차	82.8	92.7	91.3	84.9
	비국민차	17.2	7.3	8.7	15.1
완성차 수출(천대)		25.9	12.7	12.2	*4.4

주 \*: 완성차 수출 2003년 실적은 상반기 실적

자료: Automobile Industry, Economic Research Services, *Bumiputra Commerce*, vol.2/2003, Oct. 2003 및 말레이시아 각종 보도자료에서 정리

## 5. 일본 :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 최근 FTA를 체결

### 일본도 FTA 대열에 동참

- 일본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했지만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를 수용
  - 5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에 편승하여 공업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GATT/WTO 체제의 중요한 수혜자로서 다자주의를 선호
  - 국내에 농업부문이라는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는 일본은 통상문제의 다자체제 내 해결을 원칙으로 했음
  - 공산품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내는 가운데 주요 통상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자체제가 유리

- 90년대 후반 세계의 FTA 추세와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FTA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 FTA로 인해 주요 교역대상국에서 시장이 잠식당하면서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가 FTA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
    - 일본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1993년 6.0%에서 2000년 3.7%로 하락(멕시코는 1993년 NAFTA 참여)
  - 농업 및 비효율적 제조업에 대한 경제개혁 요구가 증대한 것도 일본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이유
  - 중국이 고도성장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추진할 필요가 생겼음
    - 일본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어도 중립에 두자는 의지의 표명

### 단순한 FTA보다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

- 일본 정부는 2002년 정부차원의 FTA 전략을 수립<sup>7)</sup>
  - 일본은 FTA 대상국가를 선정할 때 경제, 지리, 정치외교,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
  -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을 우선대상국으로 하고 있으며, FTA로 인해 일본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멕시코와도 체결을 추진
- 일본 최초의 FTA는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동반자협정(JSEPA :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sup>7)</sup> 日本 外務省, 「我が國のFTA戦略」, 2002.10

-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2년 1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금융·정보통신기술 협력, 공동 인재양성 등을 포함한 JSEPA를 체결
    - 양국 무역량의 98%를 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일본-싱가포르협정은 기존 FTA 개념에 새로운 분야들을 추가한 종합적인 협력
    - 전자상거래, 청소년 상호교류(워킹홀리데이 등), 과학기술협력을 포함
- 일본은 싱가포르가 농산물 생산국가가 아닌데도 JSEPA에서 농산물 분야를 제외
- 향후 FTA에서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일본 최초의 FTA로서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의식
  - 일본은 농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한·일 FTA만 FTA로 부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을 사용

### 최근 농산물을 양보하는 등 FTA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일본이 FTA 대열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 분야 때문임
- 일본은 멕시코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분야를 대폭 양보
  - 일본과 멕시코가 2002년 10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농산물 관세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 타결이 지연
  - 그러나 일본은 결국 쟁점이 된 5대 농산물 분야의 개방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2004년 3월 12일 멕시코와 체결

## 일-멕시코 FTA의 쟁점 사항 합의내용

분 야	최종 합의
돼지고기	종가세율 50% 인하로 초년도 3.8만톤에서 5년차 8만톤 수입
오렌지쥬스	관세율 50% 인하로 초년도 4천톤에서 5년째 6.5천톤 수입
쇠고기	2년간 시장개척용 10톤(무세) 3년 3천톤에서 5년차 6천톤 수입
닭고기	1년간 시장개척용 10톤(무세) 2년차 2.5천톤에서 5년차 8.5천톤 수입
오렌지	2년간 시장개척용 10톤(무세) 3년차 2천톤에서 5년차 4천톤 수입

자료: 일본 외무성

□ 일본은 동남아 등과 FTA를 적극 추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함

- 2003년 말 일본-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쌍무적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음
- 일본은 한국을 포함하여 다수 국가들과 FTA협상을 하고 있으며 정부 내 FTA협상 인력을 대폭 증원
- 중국과 아세안이 FTA를 추진하고 있어, 60년대 이후 직접투자를 통해 동남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본은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
- 일본은 동남아와는 2004년 내에, 한국과는 2005년 내에 협상을 완료할 예정
- 일본이 농산물 분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이 있음

### Ⅲ. 한국의 선택

#### 국가차원의 FTA 전략을 보유

□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에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외교통상정책의 청사진을 수립해야 함

- 세계 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됨
  -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 중국 등도 FTA에 적극적
-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번영의 한 수단이므로 국가적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장기적으로 한·중·일의 동북아 FTA와 아세안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지향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은 예정대로 조기에 타결

- 현재 한일 FTA는 한·중·일 3국의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전체의 FTA의 과정으로 인식
  - 동북아 FTA는 중복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줄여 주며 교역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됨
- 통상국가인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의 FTA도 조기에 타결(싱가포르)하거나 교섭을 재개(멕시코)
  - 일본-멕시코 FTA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 이 약화될 우려

□ FTA의 주된 목표를 선진기업 투자유치와 경제체질 강화로 설정



- 중국의 고도성장과 생산력 증강은 우리의 가공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될 전망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FTA는 '강제적 개방'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가속시켜 경쟁력을 제고
  - WTO체제 내에서 공산품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시장접근 문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낮아짐
- 중국과의 발전 및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기술 기업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FTA를 운용

###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 발휘

#### □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국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

- 국별·부문별 전문 인력들을 보강하고 민간 부문의 FTA 협상과정 참여를 확대
- 상대국 입장과 국내 여건에 따라 협정 내용을 다양화
  - 상대국과 국내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함

#### □ 상호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

- 독일과 프랑스는 농업-공산품 분야의 대타협을 토대로 하여 유럽통합에 성공
-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명확히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

- 일방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며,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우리의 지향이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라면 농업에 대해서는 고차원적 전략이 요구됨
- 일본과의 FTA에서 우리 농업에게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은 절대적 경쟁열위
  - 일본 농업의 품질과 마케팅력을 감안할 때 일부 품목에서는 對日 수입도 증가할 수 있음
  - 동북아 FTA가 발족한다면 중국농산물의 대일 진출로 일본시장에서 우리 농업의 비교우위도 사라짐
  - 對日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너무 강조한다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음
  - 동북아 FTA를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있음

### 국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

- FTA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취약부문 과보호는 국민경제 전체의 비효율과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차제에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실시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취약부문 지원이 전제
    -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와 자원을 투입
  - FTA 진행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면 추진 속도를 조절
    - 내부의 갈등 봉합과 합의 도출이 대외협상보다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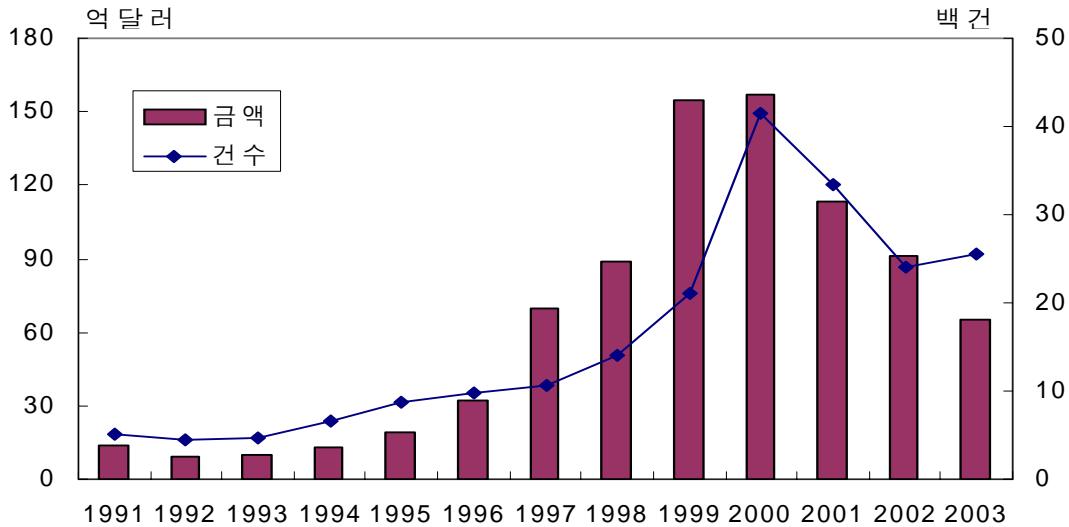
-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활용
  -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각 부문의 효율을 제고
-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FTA 이후에도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서 사후 노력을 게을리하면 비교열위 산업에 특화하게 됨
- IT 등 성장분야에서 산업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유지
- IT,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들을 개척하여 전통적 의미의 비교우위 구조를 타파
  - 일본과의 FTA에서는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 창출이 성공의 관건
  - IT의 강점을 바탕으로 관련 문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

###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세계기업들의 활동 거점이 되어야만 함
-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157억 달러에서 2003년 65억 달러로 급감
  - 세계기업 유치에 FTA 추진의 이유인 동시에 성과 기준

- 한-일 FTA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세계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은 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 직접투자 유치를 통상외교의 중심 정책으로 삼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
  -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체질 강화, 제도 선진화 등에 부합하는 외자들을 유치
    - 제조업의 경우 소재부품 직접투자 유치가 시급
    -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 등 제조업 지원분야에 대해 우대조치 실시
  - 동북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세계기업의 R&D 센터 및 본사를 유치
- 정치안정 및 노사안정을 달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 정치적 불안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치권이 기업마인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노조는 노사안정, 임금인상 억제 등에 협력하고 경영진은 해고 최소화, 교육훈련 실시 등을 약속
  - 정부규제 완화, 세 부담 경감, 교육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들을 제거

□ 기업들은 FTA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매진

- 상대국 시장에 조기 진출하고 현지기업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
-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경쟁 격화에 대비하는 한편,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

---

박번순, 전영재, 김득갑  
(pbs21@seri.org)

---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lt; 금융동향 &gt;

	3. 23	3. 24	3. 25	3. 26	3. 29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56.2	1,154.6	1,157.0	1,157.7	1,154.5
	엔/달러	106.79	106.19	106.06	105.99	105.57
금리	회사채(3년AA-, %)	5.21	5.21	5.22	5.31	5.36
	국고채(3년, %)	4.40	4.41	4.42	4.51	4.56
주가지수(KOSPI)	866.17	861.72	853.38	863.95	874.67	

## &lt; 실물동향 &gt;

(전년동기(월)비, %)

	2002년	2003년	2003.10월	11월	12월	2004. 1월	2월
GDP성장률	7.0	3.1		3.9			
민간소비	7.9	-1.4	..	-2.2	..	..	..
설비투자	7.5	-1.5	..	-2.4			
산업생산	8.0	5.1	7.8	4.9	10.9	4.6	16.6
평균가동률	78.3	78.4	81.1	79.6	80.4	80.4	83.5
실업률	3.1	3.4	3.3	3.4	3.6	3.7	3.9
실업자(만명)	(70.8)	(77.7)	(76.5)	(79.2)	(82.5)	(85.4)	(90.0)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8	0.06	0.06	0.08	0.05	0.0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3.7	3.4	3.4	3.4	3.3
수출(억달러)	1,624.7	1,938.2	189.3	182.4	197.3	189.9	194.6
(증감률)	(8.0)	(19.3)	(25.5)	(20.0)	(31.3)	(32.7)	(45.9)
수입(억달러)	1,521.3	1,788.3	165.4	157.6	176.2	161.2	174.1
(증감률)	(7.8)	(17.6)	(19.7)	(12.6)	(22.0)	(11.2)	(25.6)
경상수지(억달러)	53.9	123.2	24.4	27.7	24.5	23.4	30.6
외환보유액(억달러)	1,214.1	1,553.5	1,433.2	1,503.4	1,553.5	1,574.5	1,630.1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440	1,598	..	..	1,598	..	..